

이기는 삶

배우기 위한 인내

백 번, 천 번, 만 번을 실패하더라도 기어이 다시 도전(挑戰)하는 인내심(忍耐心)만이 목표에 이르는 길임을 한 시라도 잊지 말자

어려서부터 보석 감정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다. 그는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 기술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했다. 하지만 높은 보석 감정사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다.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은 끈기와 인내심인데,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청년은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달라고 애달랐다. 어려서부터의 꿈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충분한 소질과 열정을 갖고 있다고 보석 감정사를 설득했다. 마침내 그 전문가가 청년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 다시 오게."

다음 날 아침 청년이 찾아가자 보석 감정사는 젊은이에게 작은 의자를 내주며 거기에 앉으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쥐어 주면서,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지시했다. 청년이 앉아있는 동안 보석 감정사는 보석들의 무게를 달고 자르고 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계속했다. 청년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다.

다음날 아침에도 보석 감정사는 청년의 손에 여제의 보석을 쥐어주고는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했다. 셋째 날

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오늘은 뭔가 가르쳐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면 또다시 어제와 똑같은 지시를 내릴 뿐이었다. 일주일 이 지났을 때 청년은 보석을 손에 움켜쥐고 앉긴 했지만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승님, 전 언제부터 배우게 됩니까?" 보석 감정사는 말했다.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는 또 자신의 일만 계속하는 것이었다. 청년은 좌절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제자로 받아들이기 싫으면 싫다고 할 일이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 옳지 못한 일이었다.

마침내 열흘째 되는 날 아침, 보석 감정사가 그날도 똑같은 보석을 쥐어 주며 의자에 앉으라고 지시하자 청년은 화가 나서 그것을 집어던지며 이렇게 외치려고 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 꼴랑 먹일 셈인가요?" 그런데 청년은 보석을 집어던지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어제까지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스승이 말했다. "이제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군."

불목하니 10년이라는 말이 있다. 절에서 밥 짓고 물 길는 가장 아래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을 불목하니라고 한다. 스님이 되고자 절에 들어갔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불목하니만 시키지 참선(參禪)하는 법이라든지 불법(佛法)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쳐 주지 않기에 증도에 포기하고 산을 내려간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허드레 일을 시키는 것은 우선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뜻이며 모든 도의 시작은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마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내가 도(道) 닦으러 왔지 이런 허드렛일을 하려고 왔나?" 하는 마음에 결국 증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고통을 참고 견기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과 반드시 목표(目標)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불굴(不屈)의 의지(意志)가 필요하다. 목표에서 결코 눈을 돌리서는 안 된다. 백 번, 천 번, 만 번을 실패하더라도 기어이 다시 도전(挑戰)하는 인내심(忍耐心)만이 목표에 이르는 길임을 한 시라도 잊지 말자. 도(道)란 결국 깨달아 얻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로써 그 목표에 도달(到達)하는 것이다.\*

수녀의 요가 교실

내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사람 속에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있다. 몸과 마음을 하나라고 하면서도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만병의 원인은 욕심이다. 욕심이 스트레스를 불러오고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수술은 비뿔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드러운 아름다움과 힘을 가질 수는 없다.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명약 이슬성신이 있는 승리제단의 요가교실과 함께하면 다이어트, 근력 강화,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 몸의 보약, 마음의 보약을 찾자!

견상자세



**효능:** 뇌 호르몬을 촉진시켜 어른들 피로회복에 효과적, 고혈압환자도 좋다. 두통이나 무거운 머리를 맑게 해준다. 전신의 각선미를 아름답게 해준다. 성장판 자극으로 어린이 성장발육에도 좋다. **동작①:** 엉덩이를 최대한 높게 끌어 올리며 양팔과 양다리를 쭉 펴준다. 20초 유지, 5회. **동작②:** 1번 자세에서 뒤통수를 최대한 들어준다. 다리 안쪽과 몸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둔다.

플랭크 자세

**효능:** 상체를 강화시켜 주고, 복부의 근육과 다리근육이 강화된다. **준비운동:** 손목에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을 간단하게 풀어준다. 손바닥을 공을 쥐듯이 바닥에 짚는다.

**동작③:** 견상자세에서 상체를 앞으로 끌어 상하체를 수직으로 쭉 펴준다. 복부를 수축하고 뒤통수를 들어준다. 10초 유지, 5회. **동고래 자세 변형** **효능:** 다리에 더 많은 자극으로 하체 강화, 팔 근력과 복근 강화, 각선미를 아름답게. **동작④:** ③번 자세에서 팔꿈치를 바닥으로 내리고 전신을 일직선으로 펴준다. 뒤통수를 올리고 시선은 바닥을 바라본다. 20초 유지, 5회.\*

도덕경 해설

弗爲而成 불위이성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게 되는 것이다

도덕경 47장 해설

사람이 천하의 모든 이치를 다 통달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열심히 지식을 쫓아 정보를 수집하여 공부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고 혹자는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러나 도인의 세계에서 바라보면 그와 같은 생각은 안목이 짧고 어리석은 짓이라 할 수 밖에 없다. 한 해에 쏟아지는 지식과 정보가 흡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평생 공부해도 업무가 나지 않는다. 무슨 수로 감당이 되겠는가. 그러면 방법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라 할지라도 그 핵심을 관통할 수 있는 근본 원리와 이치를 터득하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숲속의 하나하나 사물과 숲 전체를 헤아려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면 된다.

이다. 한편 오늘날 최첨단 물리학에서는 우주 만물의 구성 요소와 인간 존재의 구성 요소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만물의 척도이며 주체자인 인간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존재 이유를 바로 아는 것이 모든 현상과 이치를 통달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선지성현들이 타인과 만물을 바로 알기 전에 먼저, 인간 자신을 탐구하고 자신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시 했다. 선지성현들이 소우주인 인간 자신을 밝혀 들어감으로 우주만물과 타인의 앞 속으로 깊이 다가감을 이해하는 내용이 이 장의 핵심이 아닐까 싶다.

집박으로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만 천하의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不聞於牖以知天道(불귀어유 이지천도): 창문 밖을 엿보지 않아도 천체의 운행을 알 수가 있다.

하늘과 땅의 이치나 인간의 마음의 작용과 원리를 아는 것은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굳이 나가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其出也彌遠 其知彌少(기출야미원 기지미소): 그것(마음)이 두루 멀리 있을수록 그 아는 두루 적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이 있음과 움직임을 모르고 밖으로만 떠돈다면 점점 그 아는 멀어지게 된다.

是以聖人 弗行而知(시이성인 불행이지): 그러므로 성인은

두루 돌아다니지 않아도 알고

고로 도인(성인)은 자신의 마음의 있음과 움직임을 이치와 원리를 아는 사람으로 인간 밖의 세상도 자연 안다는 것이다.

不見而名(불견이명): 보려고 하지 않아도 알려,

꼭 눈으로 보아야 아는 것은 수십 수신을 모르는 광범한 사람이나 구려하고, 도인은 보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안다는 것이다.

弗爲而成(불위이성):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세상사와 인간사가 마음의 원리와 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니 오직 자신의 마음을 밝히고 환히 아는 사람은 여지없이 세상사와 인간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주호 기자

허만욱 승사 칼럼

격암유록 궁음도가(弓乙圖歌)의 “무도(無道)대병(大病) 걸린 인간”은 누구인가?

고서나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격암유록에 실려 있는 구절이다. 의학이 고도로 발달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암 등 특종의 중병이 아니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무도대병이란 도대체 어떤 병이기에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무서운 대병(大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긴자에서 출현하여서 인간의 사망의 원인은 '피가 썩는 데' 그 요인이 있다고 단언하셨다. 구세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기신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절대 착오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피를 썩히는 원인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 그것은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 즉 나라는 주체의식이 생각을 굴릴 때마다, 예를 들면 평소의 생활에서 내가 예상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온정을 베풀어도, 이것은 마귀의 영인 나라는 주체영의 행위이므로 피가 썩는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아무리 그 행위 자체가 선한 일이라도 그것이 누구의 생각으로 행하여지는지에 따라 피가 그대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피의 작용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 중 어느 쪽의 마음으로 행하여지느냐에 따라 판가름이 나는 것이다. 심지어는 걸려가는 것도 내가 걸어가면 그것이 죄요 피가 썩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은 모두가 죄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마다 피가 썩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 매우 양심적인 인간이 있다. 어느 날 모처럼 생긴 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불쌍한 동생을 도와주려고 신발을 신을 때, 갑자기 나라는 주체 영이 '이 바보야! 오늘 비도 오는데 네 신 발 좀 봐. 밑창이 뒹어졌어'라며 급습하는 마귀의 압박에 그만 굴복하고 미는 불쌍한 양심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모처럼 양심의 발로를 무참히 꺾어버리는 비굴한 비양심이 마귀 영이요, 철천지원수인 무도대병, 즉 '나라는 주체 영'인 것이다. 그런데 이 병은 마음의 병이므로 걸 것으로 나타나는 않는다. 자존심이 바로 그 대상이요 항상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대마귀이다.

이 세상 약으로는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무도대병을 아주 쉽게 고치는 곳 이 있다. 이곳 승리제단에서는 이긴자 구세주께서 내리시는 감로 이슬성신으로 그야말로 감쪽같이 그 능구렁이를 녹여버린다.\*



不出於戶以知天下(불출어호 이지천하):

是以聖人 弗行而知(시이성인 불행이지): 그러므로 성인은

승리신문

1990. 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중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6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부산제단 : (051)863-6307	진주제단 : (055)745-9228	포항제단 : (054)292-5455	대전제단 : (042)522-1560	神戸祭壇 : (078)862-9522	神奈川祭壇 : (045)451-3150	London : (0208)894-1075
수원제단 : (031)236-8465	영도제단 : (010)6692-7582	울산제단 : (052)291-1849	순천제단 : (061)744-8007	청주제단 : (043)233-6146	下關祭壇 : (0832)32-1988	Philadelphia : (215)722-2902	
안성제단 : (031) 673-4635	김해제단 : (055)327-2072	진해제단 : (055)544-7464	정읍제단 : (063)533-7125	충주제단 : 010-9980-5805	女山祭壇 : (0942)21-4669		
평택제단 : (031)652-6438	대구제단 : (053)474-7900	영천제단 : (054)833-7121	군산제단 : (063)461-3491	금마제단 : (063)853-6673	岐阜祭壇 : (0584)32-1350		
이죽제단 : (031)672-6786	마산제단 : (055)241-1161	사천제단 : (055)833-7866	광주제단 : (062)524-4555	橫濱祭壇 : (045)261-6338	大阪祭壇 : (06)6451-3914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